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3.4.24(수)
통 일 부
[정세분석국]

● 대남동향

- 우리 당국의 '北, 대화 거부 유감 표명 및 호응(올바른 선택 등) 촉구'에 대해 '한반도 정세악화 책임전가 술책'으로 "대화의 간판을 단 또 다른 대결소동일 뿐"이라고 왜곡 회피(4.23, 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대화과 대결소동은 양립될 수 없다)
 - *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발언(4.18, 北 도발시 모든 수단으로 응징)은 "청와대 안방 주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"으로 '남한의 대화제의를 여론오도, 기만술책'이라고 연일 비난(4.23, 중통·민주조선/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호전적 망발)
- 국군 11기계화보병사단의 4.24-25 '통합대침투종합훈련' 예정, 연합 뉴스 인용 비난(4.23, 중방·중통)

● 대내동향

- 박봉주(내각 총리), 黃南道內(해주시 비료공장·남새온실 및 청단군 청정협동농장과 강령군 부민협동농장) 농사실태 현지 요해(4.23, 중통)
 - 이에 앞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대화사업도 요해
- 【인민군 창건(4.25) 81돌 관련 4.23 동향】
 - * 인민대표단들, 군부대들 방문 및 '김정은 선물' 전달(4.24, 중통·중방)
 - * 인민무력부, 김격식(인민무력부장) 참가下 駐北 무관단을 위한 연회와 영화감상회 개최(4.23, 중통·중방)
 - * 「농근맹」 중앙예술선전대공연, 리명길(위원장) 등 참가下 平北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문화회관에서 진행(4.23, 중통·평방)

- * ‘공화국영웅(김승운)과 상봉모임, 「직맹」 일꾼들과 노동계급 · 「직맹원」들 참가
下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(4.23, 중통 · 중방)
- * 駐北 무관단,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· 축하편지 김격식 통해 전달 및 이란 · 러 ·
베트남 · 쿠바 · 이집트 무관과 中 국방무관도 축하편지 전달(4.23, 중통 · 중방)
- 제28차 중앙과학기술축전(4.23-30) 개막식, 4.23 3대혁명전시관 새기술
혁신관에서 진행(4.23, 중방)
 - 박봉주(내각 총리) · 최상건(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) · 김승두(교육위원회 위원장) · 장철
(국가과학원 원장) · 계획남(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/개막사) 등 참가
 - 530여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단체와 개인부류로 나뉘어 16개의 분과에서 발표
되게 되며, 200여종의 실용성 있는 제품들 전시
- 김영일(黨 비서), 4.23 유럽 정치인 대표단과 담화(4.23, 중통 · 중방)
 - * 黨중앙위원회, 4.23 평양고려호텔에서 김영일과 리종혁(北-유럽동맹친선의원단 위원장)
등 참가下 유럽 정치인 대표단을 위해 연회 개최(4.23, 중통)
 - * 유럽 정치인 대표단, 4.23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4.23, 중통 · 중방)
- 駐北 시리아 임시대리 대사, 4.23 ‘태양절(4.15)’ 즈음 김기남(黨 비서) ·
리룡남(무역상) 등 초대下 自國 대사관에서 연회 개최(4.23, 중통 · 중방)

● 대외동향

-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(4.23), 미국의 ‘2012 국가별 인권보고서(4.19)’의
‘北 인권상황 평가(여전히 개탄스럽다)’에 대해 ‘우리(北) 사회주의 제도를
무너뜨리려는 음모’라고 반발 및 ‘핵억제력 강화’ 강조(4.23, 평방 · 중통)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現 한반도 사태와 관련 ‘北 위험한 오판’ 지적에
대해 “오판은 미국이 하고 있다”며 ‘미국의 現 對北정책은 北의 핵무기
보유 이전시기의 구시대적 對北정책’이라고 ‘핵무기보유’ 과시 및 호언
(4.23, 중통/미국의 오판은 역사적 패배를 초래할 것이다)

○ 미국의 對北대화 전제조건(北 비핵화조치)은 ‘받아들일 수 없다’며 北-美 대화는 “우리(北)의 요구(한반도주변 전략공격수단들 전부 철수 등)가 실현 될 때만 시작될 수 있다”고 강박(4.23, 중통·노동신문/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명백히 대답해야 한다)

* “미국의 대화타령은 국제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극”이라며 ‘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과 2006년 당시 北-美대화 결렬을 거론하며 미국의 對北대화 전제조건’ 지속 비난(4.23, 중통/굴욕적인 협상탁에는 마주앉을 수 없다)

○ 北, ‘韓美가 對北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·反北제재 결의 철회와 남한 역시 남북관계 악화를 사죄해야 한다’고 주장 및 ‘북핵, 대화협상 대상 不可’ 강조(4.23, 평방·민주조선/제재와 대화는 양립 될 수 없다)

* 미국의 ‘군사행동 자제 및 對北 대화제의’ 등 조치들에 대해 “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우리(北)에 대한 핵전쟁 책동을 완비하려는 데 있다”고 비난 및 ‘미국의 反北정책에 北-美대화·비핵화 不可’ 지속 강조(4.23, 평방/도발자 침략자의 날강도적 궤변)

* 南 軍당국의 ‘북한군 초토화 전략’의 ‘작전계획 5015’ 반영 계획을 거론하며 미국의 2007년까지 남한內 군사연습(1만3,700여회 중 韓美합동 900·미군 단독 2,400여회) 비난 및 ‘한반도 긴장격화,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도발자·침략자’라고 주장(4.23, 중통)

○ 김일성화·김정일화, ‘제11차 중국 두견화전시회’ 금상과 상장 수상 및 4.19 중국 강서성 정강산사에서 수여식 진행(4.23, 중통·중방)

*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 ‘제11차 중국 두견화전시회’ 최고특별상과 상장, 실내전시금상과 상장 수상 및 4.20 왕평(중국 공산당 강서성 길안시쑤 서기)이 北 대표 단장에게 전달(4.23, 중통·중방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□ 재일동포 조국방문단, 4.23 평양 출발(4.23, 중통·중방)

//끝//